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김영섭 'KT 사령탑' ICT·통신사업 진두지휘

올해 통신업계 최대 화두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통신산업에 이끌어 온 KT 수장에 누가 오를지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해 11월 구현모 전 대표가 연임에 도전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절차적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반대로 실패했고 다음 후보로 나선 윤경립 전 사장 또한 정기주총을 나흘 앞두고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KT는 9개월간 박종욱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며 경영 공백을 보냈다. 긴 기다림 끝에 올 8월 김영섭 대표가 취임하면서 리더십 공백이 해소됐다.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난 김 대표는 경북사대부고를 나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LG상사(현 LX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럭키금성상사에 입사해 회장 감사팀장, 총무부장, 미국법인 관리부장을 거쳐 LG 구조조정본부로 옮겼다.

2000년 LG 구조조정본부 재무개선팀 부장, 2002년 상무로 승진했고 2006년에는



LG그룹 계열 IT서비스 업체인 LG CNS로 옮겨 경영관리본부 부사장, 하이테크 사업본부장, 솔루션사업본부장 등을 맡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웠다.

2013년 말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자리를 옮겨 잠시 외도했다가 2015년 LG CNS 대표로 복귀했다. 2016년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역량 레벨' 평가제도를 도입해 연공과 서열과 관계없이 실무능력과 기술역량, 성과를 중심으로 연봉을 산정해 임직원의 업무효율을 높였

다. 또 실적 악화 일로의 부실 자회사를 대거 정리하고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효율을 높였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업을 이끌며 디지털 전환(DX)에서 수익성 강화에 나섰다. 김 대표는 2015년 말 대표이사 선임 이후 고객 가장 신뢰하고 인정하는 DX 파트너가 되겠다는 포부로 혁신을 지속해나왔다.

그의 지휘 아래 실적이 꾸준히 올라 2016년 매출 2조9477억 원, 영업이익 1686억 원에서 2019년부터 매년 연간 매출,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지난해 매출은 4조9636억 원, 영업이익 3853억 원으로 사상 최초 매출 4조 원을 돌파하는 기업을 도했다. 국내 최고 DX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킨 후 지난해 12월 은퇴했다.

KT의 새 수장이 된 김 대표는 "경영 공백이 길었음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지난 4주 동안 KT와 주요 그룹사의 경영

진을 만나며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유무형 자산 외에도 인재대한민국 ICT 근간을 이끄는 자부심 등 자산이 많은 기업"이라며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지속성장 기반을 건설하게 살아가면 더 합치고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역량·실질·화합 4개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모든 업무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고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빠르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의 니즈와 페인포인트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찾아내고, ICT 경쟁력 제고와 함께 본업인 통신사업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는 '역량'이다. 고객이 원하는 혁신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특히 통신 네트워크 안정 운용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KT 혁신성장 전략인 디지털플랫폼기

## 김영섭 kt

KT 대표이사

- 1984~럭키금성상사 입사
- 1986~LG 회장실 감사팀 부장
- 1986~LG상사 미국법인 관리부장
- 2000~LG 구조조정본부 재무개선팀 부장
- 2002~LG 구조조정본부 재무개선팀 상무
- 2003~2006.12 LG CNS 경영관리본부 부사장
- 2006.12~LG CNS 경영관리본부 부사장
- 2008~LG CNS 하이테크사업본부 부사장
- 2013~LG CNS 솔루션사업본부 부사장
- 2014~LG 유플러스 경영관리실 CFO, 부사장
- 2015.11~LG CNS 대표이사
- 2023.8~KT 대표이사
- 2023.8~한국통신사협회(KTOA)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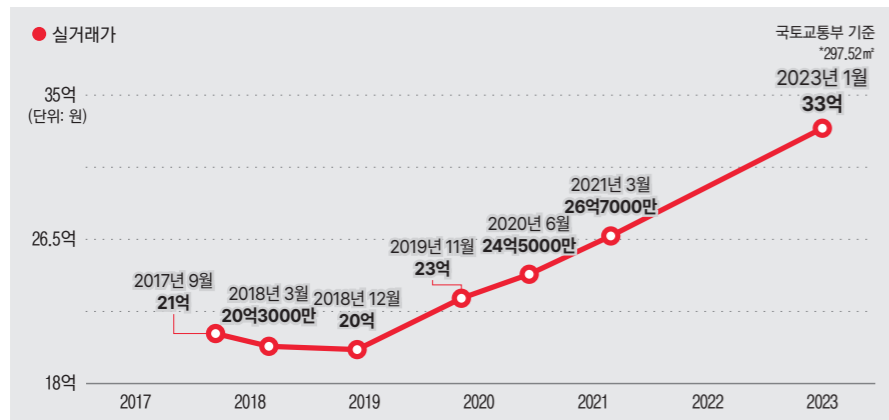


업(DIGICO)을 추구함에도 ICT의 본질적인 역량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나이와 직급에 관계없이 뛰어난 역량이 있으면 핵심 인재로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세 번째는 '실질'로 KT 사업의 근본인 통신과 ICT의 내실을 다지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숫자를 만들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기보다는 사업의 본질을 단단히 하고 미래 성장의 에너지를 쌓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은 '화합'이다. 화합은 동료로서 상호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특히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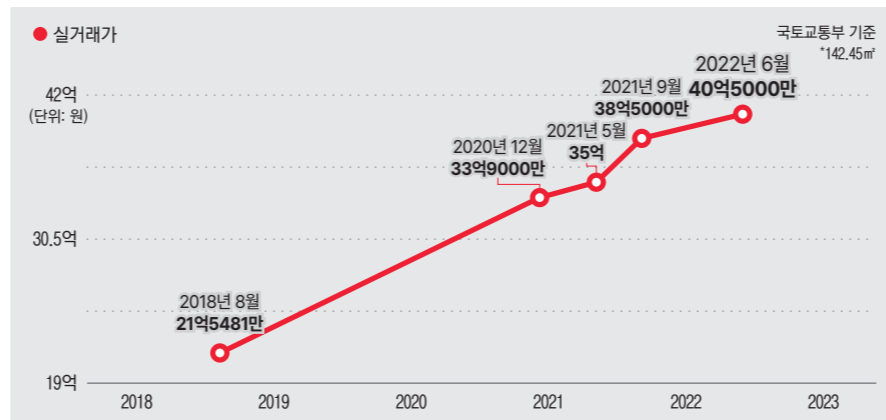
리더가 단기적인 외형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강조한 고객가치, 역량, 실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합심하며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KT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제시한 김 대표의 부동산 재력이 화제다. 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SO아파트(사진)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2009년 4월 15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호실은 공급면적 189.05㎡(약 57.18평), 전용면적 165.92㎡(약 50.19평) 규모로 최근 실거래가는 올해 7월 거래된 40억 원으로 2.5배 가량 상승했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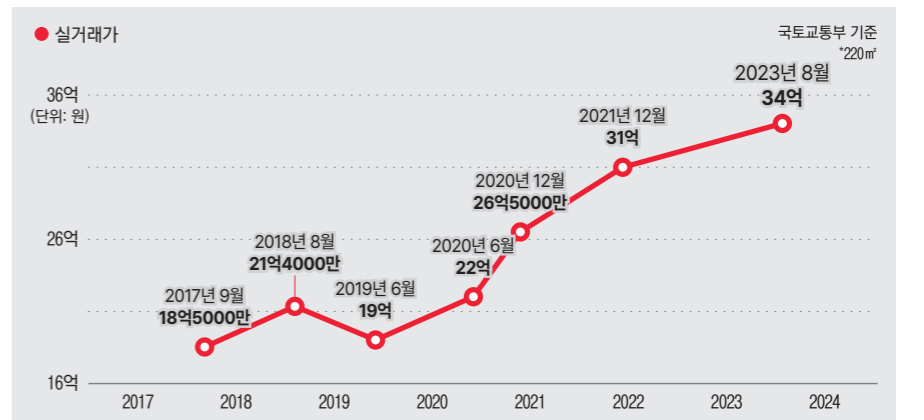
### 현대슈퍼빌(서울 서초구 서초동)



### 래미안리더스원(서울 서초구 서초동)



### 아크로비스타(서울 서초구 서초동)



### 이두한

현)대항병원 원장



항병원은 지난해 8월5일 삼성서울병원 지역환자 안전센터 협력병원으로 지정됐다. 양 기관은 이날 대항병원 자료실에서 현판 전달식을 갖고 환자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환자 안전센터 지정 운영과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두한 대항병원 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 의과대학 원장, 대한대장항문학회 정보통신위원장, 서울대 의대 일반외과 임상자문, 대한전문의학회 서울 지역부회장, 대한대장항문학회와 항문질환연구회 회장 등을 지냈다. 1990년 "우리는 대장항문질환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일념으로 대장항문전문 대항병원(전 서울외과클리닉) 개원해 한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병원으로서 신뢰를 쌓아왔다. 이 원장은 EBS 황문질환 '명'으로 2008년과 2014년 각각 선정되었으며 전문병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

### 김기동

전)두산건설 부회장



회장은 두산건설에서 분양사업장 관리 강화로 재무 건전성을 제고했으며 해외사업 강화, 사업 영역 다각화에 노력했다. 또 건설분야의 해외사업을 본격화하면서 2010년 캄보디아 송전선로 공사 수주로 17년 만에 해외 사업을 재개하는데 영향력을 끼쳤다.



김기동 전 두산건설 부회장은 서울대 공업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건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6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주택사업본부 부사장, 건축 주택사업본부 부부장 부사장 등을 지내며 국내외 건설사업부문에서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30년 가량 '대우맨'으로 일하다 2007년 두산건설 신입 사장에 선임돼 자리를 옮겼다. 이듬해, 지난 32년간 다양한 현장 실무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통해 체득한 건설 기술을 확대 발전시켜 건설 기술의 선진화와 건설 산업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로 금탑산업 훈장을 받았다. 김 전 부

### 채양기

전)금호타이어 관리총괄 사장



메디록스) 사장을 맡았다. 2020년 5월부터 금호타이어 관리총괄 사장에 영입돼 금호타이어의 재무를 총괄했으나 올해 7월 새로운 컨소시엄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껴 사임했다.

채양기 전 금호타이어 관리총괄 사장은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외자부와 할부관리부를 거쳐 1999년 재무관리실장(이사 대우)에 임명됐다. 2003년 재무관리실장을 맡은 후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재무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카드 부사장, 회계법인 삼정KPMG 부회장을 지냈고 2005년 현대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복귀해 같은 해 사장으로 승진했다. 채 전 사장은 현대오트모빌 인수와 현대글로벌리스 상장 등을 주도했다. 2018년 7월에는 금호타이어 사외이사로 선임되면서 금호타이어와 연을 맺었다. 2020년 2월부터 바이오 전문 업체 중앙오션현



##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851가구 선분양

#### 경기 시흥시

현대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섬 일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의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23일부터 25일까지 청약접수를 받고 3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후 11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6월이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716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35층·12개동·전용면적 60~85㎡·공동주택 851가구·전용면적 84~119㎡ 오피스텔 945실 총 179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에는 공동주택 851가구만 먼저 분양에 나선다.

타입별 가구수는 공동주택 △60㎡ 326가구 △85㎡A 175가구 △85㎡B 350가구를 구성한다. 4배이 판상형 구조(일부 가구) 및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조감도.

현대건설

우선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바로 맞은편에 시화나래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해 학부모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여기에 시화MTV 일대에는 77만 국·공단대로·평택시흥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 등을 통한 전국 각지

로 이동이 수월하고 수도권 전철 4호선과 서해선, 수인분당선 등 다양한 교통망이 잘 조성돼 있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워터프론트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조망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 시화호와 서해바다가 있어 입주주민들은 집 안에서 시화호와 서해바다를 조망 가능(일부 가

구 제외)하다. 또한 단지 인근 서해안 산책로 및 시화나래 둘레길을 통해 편안한 여가 및 휴식도 즐길 수 있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는 타입별로 팬트리, 드레스룸 등의 옵션을 구성하는 등 특화평면을 선보인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배이 판상형 구조(일부 가구)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게 설계 됐으며 높은 천장으로 개방감을 더했다.

타입별로는 전용 60㎡는 방 3개와 드레스룸(옵션), 전용 85㎡타입은 방 3개와 함께 옵션으로 드레스룸·팬트리·현관창고까지 구성 가능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한 점도 돋보인다.

단지 커뮤니티로는 휴게공간인 힐스라운지와 피트니스·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GX룸의 운동시설을 비롯해 하이숲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작은도서관·캐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입주주민들은 한층 우수한 주거여건을 누릴 수 있다. [chodonghija.dhjung@skyedaily.com](http://chodonghija.dhjung@skyedaily.com)

### 캠코 압류재산 3142건 공매

#### 전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4963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3142건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매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2980건·동산 162건이 매각되며그중 임야 등 토지가 1968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6건을 포함해 총 502건이 공매되고 자동차·귀금속 등 동산도 매

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578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질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입찰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가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송달불응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이 공매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2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 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